

“미세먼지도 많고” 아직은 어색한 대중교통 ‘노마스크’

대중교통·마트 내 약국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첫날

광주시민 “습관에 다중밀집, 환절기 감기도 걱정돼”

“버스 안은 복잡하데다 바깥에는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20일 오전 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 마트 안에 입점한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이날 출근길 풍경은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00여m 길이 버스정류장에 모인 시민 50여명은 바뀐 정부 방침이 어색한 듯 귀에 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전광판에 뜬 ‘미세먼지 나쁨’을 의식한 듯 콧등과 마스크를 밀착시키는 등 고쳐 매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들 중 버스를 기다리던 한 남성은 답답한 듯 마스크를 벗고 숨을 들이 마셨으나 이내 주변의 모습을 살피고 다시 착용했다.

그럼에도 이 남성은 답답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듯 결국 코만 드러내는 식으로 마스크를 살짝 내려 썼다.

차량 너머 바라본 버스 안에서도 탑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긴히 통화를 이어가거나 유리창에 얼굴을 댄 채 콘서트 잠든 시민의 얼굴에는 모두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다.

비슷한 시간 남구 진월동 한 버스정류장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출근·등굣길에 오른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부 마스크를 벗은 학생 무리는 주변 시민들이 마스크를 모두 쓰고 있는 모습에 “그냥 쓰자, 쓰자” 하며 재빨리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 기사는 이전처럼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리창엔 ‘버스 내 마스크 착용’ 문구가 붙어있었다.

마스크를 벗은 채 버스에 타고 있던 한 학생은 시민들이 몰려들자 슬그머니 가방 안에서 마스크를 빼 귀에 걸기도 했다.

이 밖에 대형 마트 안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온 채 보내오던 간의 일상이 이어졌다. 약사부터 손님까지 모두가 마

스크를 쓴 채 약품을 사고파는 장면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듯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김모(23)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날인 줄은 알았지만 출근 시간 버스 안에 사람이 밀집해 있어 찝찝하다”며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박모(73·여)씨도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습관이 돼 여느 때처럼 쓰고 있다. 미세먼지와 환절기 감기를 막아주는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모(21·여)씨는 “너무 오랜 시간 일상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탓에 벗으면 오히려 눈치가 보이고 부끄럽다”며 “천천히 분위기가 바뀌면 그때 벗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해제를 반기는 의견도 있었다. 택시 기사 박모(58)씨는 “그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착용을 요구하면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만취한 승객을 태우면 관련된 일체로도 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며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이 같은 안내를 하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아도 돼 다행



대중교통·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20일 오전 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린 뒤 길길을 재촉하고 있다.

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입점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 김모(42·여)씨는 “개방형 약국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던 지난 정부 방침이 아쉬웠다. 마트는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약국은 그대로

뒀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정부 방침이 변경돼 다행이다. 마스크를 두고 생기는 현장 문제는 더이상 없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재환기자

전남 학생 100명 중 5명은 다문화 학생…전체의 5.29%

학생수 5년만에 10만명대로 감소

베트남·필리핀·중·캄보디아·일 순

전남지역 전체 학생수가 5년만에 2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감소한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1만명대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총 학생수는 지난 2018년 22만496명에서 지난해 기준 19만9630명으로 5년만에 10만명대로 감소했다. 2019년 21만3284명, 2020년 20만6785명, 2021년 20만3568명이다.

반면 다문화 학생은 2018년 9789명(4.44%)에서 2019년 1만517명(4.93%), 2020년 1만701명(5.18%), 2021년 1만1194명(5.5%), 지난해 1

만1367명으로 전체 학생의 5.29%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문화 학생 학급별로는 초등학교가 6211명이며 중학생 2597명, 고등학생 996명, 유치원 901명, 특수 50명이다.

국제결혼을 통한 국내 출생이 95%를 차지했으며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유학 등은 5%로 분석됐다.

다문화학생의 국적은 베트남이 5374명(4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1820명(16.01%), 중국 1669명(14.68%), 캄보디아 877명(7.72%), 일본 639명(5.62%), 몽골 219명(1.93%), 태국 222명(1.95%), 중앙아시아 146명(1.28%) 순이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여수·순천이 각각 10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포 911명, 나주 836명, 광양 821명, 영암 711명, 해남 567명, 화순 518명, 무안 481명, 고흥 457명, 장성 448명, 영광 412명, 완도 381명, 보성 362명, 강진 333명, 함평 326명, 담양 324명, 장흥 309명, 신안 297명, 진도 282명, 곡성 254명, 구례 195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학력 수준이 낮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지역은 국제결혼이 많아져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 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와 역사·문화적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쟁점

오늘 국토위·내달초 국방위 법안소위서 잇따라 논의…“4월 통과 기대”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잇단 약재를 넣고 속도를 내면서 4월 국회 통과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TK신공항 특별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쟁점들에 대해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다룬 국방위 법안소위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고 나면 나란히 4월 국회에서 상인위를 거쳐 본회의에

동시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 제정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일정상 4월에 상인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이전·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두 특별법에 모두 포함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몇몇 걸림돌이 해결됐다”며 “마음 같아서는 3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